

# “어린이날, 익산서 신나게 놀자”

### 4일, 익산 어린이날 큰잔치 · 영유아 맞춤형 놀이 체험 축제 5일, 숨리 어린이 민속 큰잔치 · 보석박물관 다채로운 행사 홀로그램 체험관, 4~6일 홀로그램 활용한 다양한 체험 진행

익산시가 제102회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 준비에 한창이다.

29일 익산시에 따르면 다음 달 4일, 5일 영유아를 비롯해 어린이들이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와 체험이 지역 곳곳에서 진행된다. 먼저, 4일에는 (사)세종전통예술진흥회(대표 조봉달) 주관으로 중앙체육공원에서 오전 11시부터 '제29회 익산 어린이날 큰잔치'가 열린다.

이날 가족 간 세대공감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전통 민속놀이, 에어바운스, 예술 체험 나무공방, 비즈만들기 등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5일에는 (사)삼동청소년회(대표 이정례)이 주관하는 '제38회 숨리 어린이 민속 큰잔치'가 '모여라 꿈나무 어허 덩더꿍!'이란 주제로 원광대학교 소운동장에서 오전 11시부터 펼쳐진다.

모범어린이 2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후호 굴렁쇠 굴리기, 풍기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 민속놀이마당이 진행된다. 아울러 다문화체험, 탁본 장

에 체험 등 참여마당도 마련된다. 두 행사에 대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동보육과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도 4일 '온 가족 도란도란 어린이놀이세상' 행사를 개최한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가족센터, 글로벌문화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원광보건대학교 등 다양한 유관기관들과 함께 풍성한 체험 활동을 선보인다.

영유아 맞춤형 놀이 체험 축제로 어린이뮤지컬, 오감민족 놀이체험, 요리 체험, 숲 체험, 플리마켓 등이 진행된다. 자세한 문의는 육아종합지원센터(063-859-4765)로 하면 된다.

보석박물관에서는 5일 오전 10시부터 다채로운 볼거리, 즐길거리를 경험할 수 있다.

먼저 볼거리로는 '니하오 중국 꾸러미' 전시는 다양한 중국 관련 실물 자료를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5회에 걸쳐 18명을 대상으로 차파오 꾸미기와 꾸러미 설명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는 국립민속박물관 주관

'2024년 다문화 꾸러미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린이들의 문화 다양성 이해를 돕고자 마련됐다.

당일 오후 1시부터는 제 7공수 특전 여단 군인들과 함께하는 총기 방탄복, 길리슈트 등 군장비 전시 및 체험이 운영된다.

즐길거리로는 △골드 캐이션 화분 △천연보석 팔찌 △천연보석 소망나무 △공룡화석 지우개 △비즈 팔찌 △핀버튼 등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될 예정이다.

어린이날 행사는 현장 접수로 진행되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보석박물관(063-853-4772~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익산역 동문 주차장 옆에 위치한 익산 홀로그램 체험관에서도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홀로그램 기술이 아이들에게 놀이로 다가올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대표축제박람회 콘텐츠 부문 최우수상 수상

전국 각지의 축제들이 모인 자리에서 익산의 우수한 축제·관광이 주목을 받았다.

익산시와 익산문화관광재단은 '제4회 대한민국 대표 축제 박람회'에 참가해 콘텐츠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개최된 제3회 박람회에서는 마케팅 부문 최우수상과 마스코트 부문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

대한민국 대표축제박람회는 지역의 다양한 축제·관광 정보를 공유해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이번 박람회는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진행됐으며,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기업 등 116개 기관이 참가해 총 283개의 부스를 운영했다.

익산시는 청룡의 해를 맞아 대표 마스코트 '바룡'을 활용해 백제 왕도 익산의 대표축제와 9경(景) 9악(樂) 관광지를 홍보해 익산 여행의 즐거움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특히, 다음 달 3~6일 개최되는 '익산서동축제'와 10월 '천만송이국화축제'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백제 의상 체험을 진행해 익산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아울러 에어볼 뽑기, 마뽕 포춘쿠키(행운문자가 적힌 종이 들어 있는 작은 과자), 마뽕이와 댄스팝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진행해 관광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 운영을 통해 백제 왕도 익산의 우수한 대표 축제와 관광자원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 대표축제박람회 대중선포도부문 우수상 수상

군산시가 지난 28일부터 28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에서 대한민국 베스트 축제어워드 대중선포도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4 대한민국 대표축제 박람회는 축제산업에 홍보하고 축제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주최하고 (주)한국전시산업원이 주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여 4년제 개최된 축제 박람회다.

이번 박람회에는 전국 116개 자치단체와 유관기업 등이 참여해 지역의 대표축제를 홍보하고 이벤트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군산시는 이번 박람회를 통해 군산

의 대표축제이자 전라북도 최우수축제인 시간여행축제를 알리고 근대문화유산 고군산군도, k-관광 섬 등 군산의 관광자원을 중점 홍보하였으며, 다양한 축제 관련 기업들과 B2B 바이어 상담을 진행하였다.

군산시 관계자는 "군산의 대표축제인 시간여행축제가 이번 박람회를 통해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 대중선포도 부문 우수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군산시는 지속적으로 지역축제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하여 10월 중 예정된 12회 시간여행축제를 풍성하고 다채로운 콘텐츠로 준비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정헌을 익산시장, 지역 행사 '안전 최우선' 주문

정헌을 익산시장이 지역 행사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아 안전망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정헌을 시장은 29일 간부회의에서 "지역에서 크고 작은 축제, 행사가 많은 시기"라며 "모두가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경 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가정의달 5월을 맞아 어린이날 행사부터 각종 축제와 종교 행사 등을 마련했다. 어린이날 연휴 기간 중앙체육공원과 원광대학교 육아종합지원센터, 공공승마장, 합일초등학교, 보석박물관 등서 가족 단위 시민·관광객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아울러 오는 5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서동 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개

막행사인 무양행차 퍼레이드에는 시민 1,000여 명이 참석해 한꺼번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만큼 무엇보다 안전한 행사 운영이 요구된다.

정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 22일부터 오는 6월 21일까지 61일간 10개 분야 129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년 집중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 것을 요청했다.

정 시장은 "집중안전점검 기간 재난이나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점검이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안전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지역 소식통

### 군산시,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 · 공시

군산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사용될 개별공시지가를 4월 30일에 결정 · 공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9만5,347필지로 전년 대비 +1% 상승한 것으로 군산시 최고지가는 수송동 롯데마트 부지로 m당 270만8,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임피면 보석리 승화원 인근 부지이며 m당 2,040원으로 확인되었다.

시는 결정된 지가를 시청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는 5월 29일까지 토지정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국토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통해 현지에서 토지 특성을 확인 후 심의를 거쳐 6월 28일까지 처리,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사회적경제 나눔의 날' 행사 개최

익산시가 5월 4일 중앙체육공원에서 '사회적경제 나눔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

사회적경제 나눔행사는 시민들이 사회적 가치를 함께 느끼고, 사회적경제에 대해 조금 더 친숙히 다가가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다양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제품 직거래와 홍보를 진행한다.

또한 우드마커스 테라리움 체험 행사와 문화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진 나눔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널리 알리고 상생의 사회적 가치를 느끼는 뜻깊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지역사회 공헌활동에 활발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미주한인회총연합회 군산 방문... 상호교류 협약 체결

### 미주지역 새로운 교류 방안 · 상호발전 논의... 국제교류 폭 넓혀

군산시는 29일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간담을 가지면서 미주지역의 새로운 교류 방안과 상호발전 등에 논의하는 등 국제교류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다.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1977년에 창립된 재미한인사회의 대표단체로서

전 미주의 지역한인연합회 및 지역한인회와 연대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의 이민 정착과 법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 고유문화를 보존하며 미국 사회 참여에 필요한 제반 활동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이날 군산시장과 간담에서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에서 군산 초청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김임준 군산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으며 군산시의 총연합회가 상호 교류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 활성화 및 군산시와 미국 각 도시 간 경제, 문화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서정일 총회장은 "군산에서 보여 주신 환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체결한 상호교류에 대한 협약을 바탕으로 군산시와 미국 각 도시 간의 활발한 경제, 문화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임준 군산시장은 "미주한인회총연합회 방문은 우리 군산시와 미주 동포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한 시작점"이라고 하면서 "군산시와 미국 각 도시 간의 폭넓고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하였다. /군산=이재춘 기자



##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대전

